

“힐링&설렘...여행 떠나는 기분 느꼈으면”

영화 '...홍반장' 리메이크 작품 걸모습과 달리 허당 치과의사 역 대세 배우 김선호와 사랑 이야기 “안 맞는 듯 닮은 두 인물 케미 굿”



배우 신민아가 24일 오후 tvN 새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손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맨틱코미디 정말 기대했어요!” ‘로코 퀸’ 신민아(37)가 돌아왔다. 28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신민아는 20여 년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보여준 ‘로코의 진수’를 보여준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김선호와 사랑 이야기를 펼치면서 “힐링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한다.

●“로코 퀸” 수식어, 부담도 있지만... 드라마는 김주혁과 엄정화가 주연한 2004년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을 리메이크했다. 신민아는 “자칭 완벽·현실주의자이지만 실상은 ‘허당’이 따로 없는” 치과의사 윤혜진을 연기하면서 특색 튀는 개성을 선보인다. 앞서 스릴러 영화 ‘다바’, 정치드라마 ‘보좌관’ 시리즈 등으로 다양한 소재에 도전했던 신민아가 2017년 tvN ‘내일 그대와’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로코’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신민아는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로코 퀸” 수식어는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말랑말랑한 ‘로코 드라마’를 기다리던 중 만난 따뜻한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단번에 출연을 결심했

다고 밝혔다. 극중 영뚱하고 귀여운 윤혜진의 캐릭터는 실제 신민아의 성격과도 비슷하다. 치과의사 역할을 제의받고 “치과 분위

기를 느끼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다”고 고백해 동료들을 “뺨” 터지게 만드는 영뚱함도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김선호는 “신민

아 선배가 정말 그릇이 크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웃어준다”면서 “재미 있는 아이디어도 미리 생각해 제작진 앞에서 직접 펼친다. 덕분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생각을 덧붙여 재미있는 장면들이 탄생했다”고 돌아섰다.

●로맨스에 자연 풍광까지 온 동네를 누비며 잠깐을 마다하지 않는 ‘홍반장’ 김선호와 “티격태격 싸우다가 정도는 ‘제일 무서운 로맨스’를 그린다. 그는 “서로 맞는 듯 안 맞는 듯 닮은 두 캐릭터의 관계가 묘한 설렘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 좋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어 가는 과정도 로맨스만큼 중요한 시청 포인트로 꼽힌다. ‘내일 그대와’ 이후 재회한 연출자 유재원 PD는 “이전보다 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진 신민아가 새롭게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민아의 목표는 하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행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가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닷가의 풍광,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잘 어우러져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기에애하게 촬영한 현장의 분위기가 시청자에게도 고스란히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땀관부’(땀은 관심 부닥드립니다)의 졸업일!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버터’ 재생수 1억부 BTS, 英·日 플래티넘 인증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영국과 일본에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24일(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버터’의 곡 재생수 1억회를 넘기면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7월 ‘플래티넘’ 인증 받았다. 5월21일 발매 이후 72일 만으로, 일본 레코드협회 사상 최단 기간을 기록했다. 영국음반산업협회는 이들의 또 다른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플래티넘 인증했다. ‘다이너마이트’는 실물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해 60만장을 넘겼다. 한편 ‘버터’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3주 동안 10위권에 들며 8위를 차지했다.

류승룡·이정재 등 기후 위기 메시지 특별 화보



류승룡

배우 이정재, 류승룡, 한예리 등이 기후 위기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 화보를 내놨다. 2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물 부족 문제 등 10개 콘셉트의 기후위기 이슈를 담은 배우 화보를 공개했다. 권유리, 차학연, 박진희, 이선균, 윤승아, 장윤주, 이광수 등도 참여했다. 화보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재능 기부로 참여한 조선희 사진작가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배두나·이요원·옥지영, 20년 만에 한 무대에



배두나

배우 배두나·이요원·옥지영이 20년 만에 한 무대에 선다. 2001년 정재은 감독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의 주연인 이들은 26일 개막하는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상영한다. 또 28일 스페셜 토크를 진행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네이비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9월1일까지 서울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을 통해서도 다양한 작품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유명 캐릭터 ‘무민’을 만든 토베 안손의 삶을 그린 영화 ‘토베 안손’이다.

연미협, 24일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

국내 주요 연예스포츠 언론사 모임인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연미협)가 24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올해 초 발족한 연미협(회장 손남원)은 앞으로 회원사 저작권 보호와 연예스포츠 뉴스 서비스의 개선 등에 힘쓸 예정이다. 연미협의 회원사는 스포츠동아를 비롯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뉴스엔, 마이데일리, 일간스포츠, OSEN 등 11개 언론사다. 협회는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각종 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관련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 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시대 윤아, 영화 ‘벌새’ 음성해설 재능기부



임윤아

그들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배우인 임윤아가 배리어프리영화 내레이터로 나선다. 2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임윤아가 시·청각장애인이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는 영화 ‘벌새’의 배리어프리 버전에 재능기부로 음성해설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임윤아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고, 주변에 추천할 만큼 좋아했다”면서 “배리어프리 버전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가 찾아와 망설임 없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제작비 50% 먼저 지급”...극장가 아름다운 ‘통 큰 양보’

코로나 맞서 극장·배급사 상생 약속 모가디슈·싱크홀 흥행에 조기 달성

“백신의 빠른 보급과 맞물려 한국영화 개봉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관객의 더 큰 성원과 사랑을 기대한다.”

올해 6월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이 소속된 한국상영관협회가 내놓은 바랍이다. 당시 한국상영관협회는 투자배급사와 극장 티켓 매출의 절반씩 나눠 준전의 ‘부울’과 상관없이 ‘모가디슈’와 ‘싱크홀’의 해당 매출이 총 제작비의 50%에 달할 때까지 전액을 각 투자배급사에 먼저 주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 영화가 실제로 이를 넘어서는 매출을 거두면서 영화계와 극장가의 ‘상생’에 대한 바람이 성과로 이어졌다.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모가디슈’는 7월28일 개봉 이후 이달 23일 현재까지 누적 269억2600여만원의 누적 매

출액을 기록했다. 이달 11일 선보인 ‘싱크홀’은 166억72000여만원이다. ‘모가디슈’의 총 제작비는 255억원, ‘싱크홀’은 145억원 가량이어서 각 절반의 규모는 170~180억원과 75~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두 작품은 각각 이달 초순과 중순께 “제작비 50% 보전” 규모를 넘어섰다. 관객 수 기준으로는 ‘모가디슈’ 175만여명, ‘싱크홀’은 90~100만여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극장과 투자배급사는 이후부터 종전대로 티켓 수입의 절반씩 나누고 있다. 감염병의 거센 확산세에 맞서 극장의 ‘통 큰’ 양보와 한국영화계의 잇단 새로운 콘텐츠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 셈이다.

한국IPTV방송협회(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홈조이스(케이블TV VOD) 등 2차 부가판매 업체들도 극장 동시 공개나 극장 개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선보이는 영화에 대해 기존 분배율보다 최대 20%포인트 많은 정산금을 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 속에 ‘모가디슈’와 ‘싱크홀’은 손익분기점이 낮아져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관객수 기준으로 ‘모가디슈’와 ‘싱크홀’의 손익분기점은 각각 누적 300~350만명과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23일 현재까지 ‘모가디슈’는 누적 281만여명, ‘싱크홀’은 169만6000여명을 동원했다. 평일 평균 각각 3만여명과 4만5000여명을 불러 모으고 있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CJ CGV 황재현 커뮤니케이션팀장은 24일 “극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 제작비의 50%를 보전해주고, 두 영화가 이를 넘어서면서 극장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도 한국영화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기적’과 ‘보이스’ 등 추석에도 기대작이 개봉해 ‘쌍끌이 흥행’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모가디슈



싱크홀

8인조 ‘스트레이 키즈’, 밀리언셀러 예약

데뷔 4년 만에 선주문량 100만장 아이돌 경연 ‘킹덤’ 우승 이후 인기

8인조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방찬·리노·창빈·현진·한·필릭스·승민·아이엔)가 케이팝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 2018년 앨범 ‘아이 엠 낫’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들이 새 앨범으로 ‘밀리언셀러’에 바짝 다가서며 4년 만에 가요계 한복판을 차지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23일 오후 6시 발표된 정규 2집 ‘노이즈’(NOEASY)로 이날 현재까지 선 주문량 93만장을 기록했다. 이들

의 기세와 탄탄한 팬덤에 비춰 100만장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단일 앨범으로 판매량 100만장을 넘는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엑소, 세븐틴, 블랙핑크, NCT 등이 있다.

스트레이 키즈가 데뷔 이후 100만장 가까운 선 주문량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정규 1집 리패키지 음반 ‘인생’(IN生)으로 기록한 30만장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은 4월 방송한 엠넷 아이돌 그룹 경연 프로그램 ‘킹덤: 레전더리 워’(킹덤)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번 새 앨범은 ‘킹덤’ 우



스트레이 키즈

승 이후 처음 내놓은 작품으로, 멤버들이 또 다시 모든 수록곡을 작곡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앞서 모든 앨범의 수록곡을 자작곡으로 채우고, 팀의 프로듀싱 그룹 쓰리라차(3RACHA)의 방찬·창빈·한이 주축이 된 ‘셀프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난 그룹으로도 이미 유명하다. 또 이른바 ‘미라貓’으로 불리는 강렬한 퍼

포먼스와 색깔이 뚜렷하다.

이들 발판 삼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정규 2집은 23일 기준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를 비롯해 호주, 독일, 스페인 등 해외의 40개 지역 차트에서 정상 자리를 꿰찼다. 국내 한터차트의 음반 실시간 차트와 가온차트의 리테일 앨범 실시간 차트 1위에도 올랐다.

타이틀곡 ‘소리꾼’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이날 오전 프랑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해외의 44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리만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한층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표현력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